

##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 '무기한 농성' 축산농가 생존권 위한 투쟁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1월 2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허가축사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선포식에서 그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적법화 기한이 얼마 남은 현재까지도 정부는 어떠한 뚜렷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축사 대책 입장 전환을 촉구하며 관련 법안이 개정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2월 2일

2월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가축분뇨법이 축산농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축산농가 262농가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2월 5일

2월 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환경부 앞에서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 축산농가 약 500여명이 모여 축산농가의 피맺힌 목소리를 목살하고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에 대해 '환경부 해체와 장관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1차 집회를 개최했다.

2월 7일

'축산업 말살 정책을 지지하고 농식품부·환경부장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식발·단식 투쟁 선포식'을 거행했다.

